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 1215호
1월 21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돼야

2023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교과서의 바른 개정 촉구



예하성 총회장
김병목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이 지난 6일(금) 오전 11시 은혜외전리교회 영등포성전에서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정책위원 및 실행위원, 각 국장, 각 위원장, 각 기관장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무예배는 교단 시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기도,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진균 목사는 새로운 한해를 하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시대와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간

절히 기도했다.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빌 3:10-16 말씀을 본문으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새해에도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강조하고 "신학적인 조류나 사상적인 조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판결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단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동성애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교과서개정 등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교단과 사

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교단 서기 임형순 목사,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하여' 교단 회계 조선평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재무 백영자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전임 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조용목 목사를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후배, 제자들을 격려하고 밝게 새해인사를 나누며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회원 서로를 축복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2023년 시무예배를 마치고 신년 하례식에서 인사사를 나누고 있다.

제71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2023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을 마치고 오전 후 오후 1시 제71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전임 총회장 정등용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어 최근 진행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총회장 김병목 목사 주재로 진행된 실행위원회는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 접명 후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선평 목사의 지출 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기금 납부 현황보고,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



제71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임원배석

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유직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등 각종 결의사항이 처리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2월 6일(월) 실시되는 목사고시 등의 사항이 보고되었다. 실행위원회는 직전 총회장 신재명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제71차 총회 제4회 임원회

교단 제71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1월 6일(금) 실행위원회를 마치고 교단 임원회의실에서 열려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인 등과 2023 목사고시 외 주요회부를 처리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조용목 목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사38:2~6)

눈물을 나약함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군 다윗, 선지자 예레미야, 사도 바울은 모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신앙생활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눈물이 많은 성도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물, 하나님을 향해 호소력을 가진 눈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는 자신은 죄인이요 인간의 방도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원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를 할 때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가치 있고 유익한 눈물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회개의 눈물뿐 아니라 성도들은 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애도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병고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런 눈물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기도한 결과로 그가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치료가 임합니다.

(은혜외전리교회)

긴급 도움요청입니다

B형 혈소판 긴급지정헌혈 확보 절실

경기지방회 소속 순복음아멘교회(담임목사 임형순)에서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긴급 중보기도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순복음아멘교회 김재은 자매(탄 18세)가 지난해 12월 27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B형 혈소판 긴급지정헌혈 확보가 절실합니다.

〈주의사항〉

- 1) 헌혈자 신체기준: 만16세~59세(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 단,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혈소판 지정헌혈이 불가능합니다.
- 2) 혈소판 지정 유효기간: 15일에 한번 씩 제공 가능하오니 지속적으로 지정헌혈 부탁드립니다.
- 3) 헌혈 장소에서 문진시 수혈자 등록번호를 제시하여야 함
- 4) 수혈자 등록번호: 221230-0070
- 5) 환자 혈액형: B(+)형
- 6) 요청의료기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11100150)
- 7) 혈액형 확보 진행기간: 2023년 06월 28일까지
- 8) 헌혈의 집
 - 전국 헌혈의 집 어디서나 지정헌혈 가능합니다.
- 9) 헌혈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 10) 지정헌혈 가능하신 분들은 성명과 전화번호를 순복음아멘교회(010-8362-47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한 혈소판 유효기간이 7일 이내이므로 일주일에 필요한 혈소판이 분량이 초과될 경우 폐기처분됩니다. 그러므로 연락주시면 순번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목사 임형순 · 안수집사 김남식 드림

한교연,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회

“예수한국 복음통일 앞장서는 한교연 되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하 한교연)은 지난 1월 6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관 대강당에서 2023 신년감사예배 및 신년 축하 하례회를 가졌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김병근 목사(상임회장) 사회로 이영한 장로(상임회장)가 기도했고, 홍정자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후 정광식 목사(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민족 복음화 및 자유평화와통일을 위해, 이상호 목사(법인이사)가 '차별금지법안' 및 악법 철폐를 위해, 김혜은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과 예배 회복을 위해, 윤영숙 목사(총무협회장)가 '한교연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전대훈 목사(한지교회)가 특별찬송한 후 전광훈 목사가 설교했다. 전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두 세대가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배는 김교현 목사(총무)의 광고 후 원종문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조성훈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신년 축하 및 하례회에선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참석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으로 신년인사를 대신했다.

이어 구소연 선교사(국악찬양위원장)의 특별찬양 후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김 목사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원수된 우리 인간들과 소통

하기를 원하셨다"라며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최귀수 목사(한교총 사무총장)가 한교연 신년사를 낭독했다. 한교연은 신년사에서 "2023년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하지 아니하시리 아다시 51:17' 라고 하셨다. 좌악의 길에서 돌아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 봐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3개 연합단체, 신년하례회 연합예배

주님의 영광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한 해 다짐



양정섭 목사

(사)한국개신교교단 협의대표회장(박형렬 목사/이하 개교협)과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관현 목사/이하 세개연), (사)한국기독교교회 연합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이하 기개협),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지난 1월 9일(월) 오전 11시 여천도회관 3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기인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신년하례연합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기개협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개회총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기도와 예정21.0명령총회 강매한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중앙단의 찬양에 이어 개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행 9:13-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성경! 오직 선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첫번째로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식'

이 분명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방 선교사의 사역을 지체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은 어느 개인, 어느 민족이나 성공시켰으며, 그의 '담대한 선교' 앞에서 철옹성 같은 로마제국과 로마제국의 황제들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세계사적으로 역사의 중심에 두는 것을 오직 은혜로 수용하며 핍박을 받아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사랑했다."면서 '오직 선교!'를 외치며 '이방 선교사'답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성경, 오직 선교'로 지구촌 80억을 섬겨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기개협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한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과 광고 후 세개연 김관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총연, 신년하례 및 임원 취임식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삼자”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이하 예총연)는 지난 1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리고 예총연이 오직 사랑,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18회 임원 취임식도 겸해 열린 1부 하례예배는 신학협회장 강진명 목사의 사회로 기교협 회장 김정열 목사의 기도와, 회의록서

기 임순옥 목사의 성경봉독, 예총연 임원 일동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는 삼상 18: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예총연이 설립된 후 17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헤쳐나왔다"라며,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신옥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상임회장 제갈덕구 목사가, '예총연과 21개 총회와 3개 단체를 위하여' 상임회장 이명숙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서기 박선명 목사의 광고, 심판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된 2부 임원 취임식 및 하례식은 서기 박선명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가 기교협 회장 김정열 목사·신학협의회 회장 강진명 목사·선교협의회 회장 김순일 목사 등 임원들에게 임명령 및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취임식은 이사진·고문·자문·회정단의 케이크를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금년으로 18회기를 맞은 예총연은 금년에도 교회제도습자기, 신학세미나 춘계 수련회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원로목자교회 토요예배 설립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겠다”

한국원로목자교회 토요예배가 설립됐다. 한국원로목자교회는 (사)한국원로목자총연합회(이사장 엄신형 목사,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 신하 교회로써 그동안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 한국교회 원로목사들이 쓰거운 기도와 교제로 사랑을 나누어왔다.

이번 토요예배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목자들이 기도를 통해 보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강팔희 목사(선교방송교회)가 담임이다. 지난 1월 7일(토) 드려진 설립 감사예배에서 강팔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종이지만 성심 성의껏 원로목회자님들을 섬기겠다. 우리 목자교회 토요예배가 찬양이 넘치는, 뜨거운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말씀 안에



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세광·이금숙·신동진 목사는 격려사·축사·권면으로 강팔희 담임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예배는 현광희 목사의 사회로 임광재 목사의 대표기도, 박분자 목사의 성경봉독, 오세영 목사의 행 2:43-47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구세군,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금감원과 22개 금융회사, 성금 14억 기부

금융감독원과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아름다운 나눔' 성금 14억이 구세군자선반바에 기부됐다.

올해 '아름다운 나눔' 성금은 금감원과 22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모금해 지난 12월

27일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어 그 나눔의 현장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12년째 이어지고 있



는 '아름다운 나눔'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에는 각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뜻깊은 나눔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솔선수범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세군은 전달받은 성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여 영세가정 등에 전달하는 한편,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서공회에 후원금 전달 미얀마에 성경 전달

미얀마 지폐어 성경 완료 후 현지에서 봉헌식 갖기로

주안중앙교회는 송구영신예배에서 미얀마 지폐어 첫 번째 성경 지원을 위한 후원금(3천만 원)을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에 전달했다.

주안중앙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인 성서주일을 지키며 온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미얀마 지폐어 성경을 위해 헌금했다. 후원금을 통해 미얀마의 소수민족 언어인 지폐어가 번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폐어 성경을 처음으로 제작하여 미얀마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폐어는 미얀마 진주 탄도란 지역을 중심으로 17,000명의 지폐 부족과 인도 미조람 지역의 3,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진주 탄도란 지역은 불교 민족주의로 인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특히 심한 지역이다.

또한 지폐 부족은 다른 소수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믿음이 삶의 버팀목이지만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폐어 신약은 2010년에 완역되었지만, 구약 번역 중 주요 번역지였던 랄 부아이(Ral Buai)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비약 된 탕

(Bak Hin Thang) 박사도 코로나 감염 후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 2023년 성경 번역 완료로 목표하고 있다.

미얀마 지폐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한 권의 성경을 받아보기 위해 20년 가까이 기다려 왔다. 올해에 성경이 완역되어 성경이 제작되면, 내년에는 현지에서 지폐어 성경 봉헌식을 갖게 된다.



코칭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한국기독교코칭학회, 글로벌리더십·상담코칭 과정

한국기독교코칭학회(회장 박중호 목사/이하 KCCA)는 미국 LA 소재의 신학대학협의회(ATS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소속의 2대 메이저 대학인 윌드미선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이하 WMU)와 미주장로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이하 PTSA)가 2023년 1월 봄 학기 영성과 상담코칭 철학박사(Ph.D.)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CCA는 지난해 6월, WMU와 PTSA와 MOU를 맺고 미국 한인신학대학교 최초의 코칭 석·박사과정을 개설했다.



WMU에는 글로벌리더십 코칭전공 석사(MA) 과정을 개설하여 12명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상담코칭과 영성형성 목회

학 박사(M.Min)에 8명의 학생이 박사과정 1기로 공부하고 있다.

PTSA는 전문코칭석사(MA)과정을 개설하여 13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가을에는 상담심리학과 영성코칭 철학박사(Ph.D.)과정을 개설 예정으로 있다.

두 대학은 공히 미국 신학대학 최고 권위의 ATS(Harvard, Yale, Princeton, Fuller 등)에 속해있는 인가 대학이며, 두 대학 모두 Lilly 재단으로부터 100만불의 지원금을 받은 실력 있는 대학들이다.

■ 생명의 말씀 ■



김 정 식 목사
· 광주지방회 전임 회장
· 공산목양순복음교회 담임

본문 말씀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정한 기도 시간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의 고정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조건절 형식으로 씌어졌습니다. 따라서 “만일 너희가 기도하게 되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하거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다소 예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따금 치르는 행사로서 한정된 상황에서만 드러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서 우리는 기도 생활 속에서 참된 존재의 본질과 우리 존재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쳐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나태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짜증스러운 일, 기쁜 일, 그리고 내용 없는 바보 같은 신문 기사들은 기도할 마음을 빼앗고 기도를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이제 기도가 더 이상 우리 삶과 가정의 터전이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의 근거지입니다. 폭발할 지경까지 우리 마음을 내리누르는 세상의 일들이 말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주고받는 편지들, 동료들과의 불화, 자신의 직업과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조감, 비좁고 답답한 집, 신경질적인 불안감, 초저녁 피곤한 우리를 압축하는 졸음, 졸음을 억지로 참다가 새벽과 성찰보다는

오히려 신경질이 발동되어 결국 설치고 마는 잠, 우리의 기력을 소진케 하는 이 세상, 늘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거지라 여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안락함도 누리질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란스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가 낯설고 먼 곳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하고 자용기를 내어 정신을 집중하고 이세상에 서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려할 때, 추진력과 결단력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또한 갖춰야 할 지경입니다.

더 짧아지는 기도 시간, 더욱 성급히 서두르는 기도 시간은 사실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 기도하려 할 때는 그리 힘들지 않고 기도해 깊이 빠져들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어떤 평온함을 누리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두르면서 짧게 끝나는 기도는 그날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영적인 도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irony)가 아닌가요? 짧은 시간

이나마 기도의 시간으로 이용해 보려 했던 바로 그 합리적 수단으로서 결국 우리의 “합리적” 기도 생활을 그려치는 결과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에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번제를 전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가장 맑고 집중이 잘 되는 그 시간에 먼저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신문은 읽는다거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급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일에 몰두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는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나 연속한 사건 같은 것이 주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

로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것만으로 차리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자신을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8절 말씀은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분위기와 계기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언제까지고 계속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최종된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든지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든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달 때마다 “기도하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시 27:8)는 명령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동 정

한국복음주의협, 임석순 회장 취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새 회장에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는 임석순 목사가 취임했다. 한복협은 지난 1월 13일 서울 광

진구 한국중앙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임회장 임 목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동대학교 대학기관평가인증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2022년(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All Pass’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한동대는 3회 연속 인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원대, 해외 명문학교들과 MOU



목원대학교(이희학 총장)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해외 명문학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원대는 유영안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과 이희학 총장, 천명환 국제협력처장 등이 지난 9일부터 태국 치앙마이 등을 방문해 현지 고교와 교류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美 CCM 가수 데이글, 8억 기부



미국 CCM가수로 렌 데이글(Lauren Daigle)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단체인 프라이스재단을 통해 60만 달러(약 7억 4,700만 원) 이상을 기부했다. 가스펠 음악협회는 “데이글이 뉴올리언스의 엘리스마실리스센터, 루츠오브뮤직 등에 10만 달러(약 1억 2,450만 원) 씩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간첩행위라니?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고 황정엽 씨는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었다. 이미 공산주의는 발생한 지 70년 만에 문을 닫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비하여 체제 경쟁에서 확실히 밀려났던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주민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특히 북한을 보라. 그런데 그런 북한을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이 생겨났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에는 ‘진보·웃발세력 연대’를 통한 반정부 투쟁과 북한 주체사상 및 김 위원장 선전, 특정 인물 포섭, 정치집회 공작을 통한 윤 정부 타격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 ‘합동 군사 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와 반미 투쟁과 대중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해 압박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지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수 집권 세력의 사대 매국을 부각시키고, 반통일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라’고 하달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하조직을 결성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지령문에는 ‘민노총과 같은 진보 단체들이 적시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신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와 부를 누리고, 약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구상 최악의 나라의 지시를 받고 우리 사회를 혼란케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낸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간첩들의 활동무대가 된 이유는, 역대 진보 정권들이 그들을 색출하는데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한 때문이다. 진보 정권들은 국가공공체제를 지령해야 할 대공과 공안 조직을 외세시키고, 그저 ‘북한 비라기’를 했기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다.

진보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등의 국가 안위를 도외시하고 안보 문맹(文盲)에 사로잡혔었다. 그런 권력자들의 착각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보하여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은 야당 의원이 ‘총북청 주지역 활동가 간첩과 황정엽 전 노동당비서가 주장한 고정간첩 5만 명 활동설’에 대하여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질문’이라고 답하고,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북한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대답이었다. 진보 정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의 생각이 대동소이(大同小異)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남간첩을 대한민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이 간첩을 직접 보내는 것보다, 남쪽에서 간첩들이 올려보내는 정보들이 훨씬 많

는 반증이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온갖 해례를 다 누리면서, 우리나라를 위기로 내몰는 결과를 가져오며,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앞에서 총을 들고 대드는 적군보다 훨씬 나쁜 암적 존재이다. 국가와 국민을 속여서 암암리에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북한은 일반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국가보다 훨씬 더 악한 절대왕정보다도 더한 3대를 세습하는 공산주의 국가중 유일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독재·전제 정권을 돕는 것은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영구적으로 불행에 빠트리는 지상 최대의 악행이 될 것이다.

과거에 주사파(住思派)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상당수가 정치권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는가? 그들이 만들려는 세계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들이 품는 세력은 누구겠는가? 그들을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일본색원(坂本塞源)하지 않고는 우리의 평안과 안보는 보장하기 어렵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지금도 숨어서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트로이의 목마’이므로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북한 독재정권을 위하고 그 주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동지를 하루는 간첩(間諜)들을 풀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간첩은 마치 암암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독사 새끼로 깨어나면 어미 닭을 물어 죽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결과가 오기 전에 이적(利敵) 행위를 세밀하게 찾아내야 한다.

간첩행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무를 갈아먹는 것이고, 국가 안전의 독에 구멍을 내는 것이며, 국가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의 분열과 배신으로 망한 나라는 부지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훈육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2023년 신년하례예배 드리고 뜨겁게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월 10일(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형택 목사)에서 2023년 1월 월례회 및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 믿음이 교회를 세



우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교회와 가정에 천국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2023년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전라지방회의 교회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신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김갑신 전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간단하게 회무를 마치고 광양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예찬을 함께 나누고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신년하례예배 드리고 부흥의 한 해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월 9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부흥의 한 해가 되기 바라며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삼랑교회)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재부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고전 2: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교회의 영성과 풍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설교에서 "바울 사도는 주 예



수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언어를 피했으며 유창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모습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전했다"고 강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

어아함을 강조했다. 회계 서미근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세움교회에서 섬겨준 식사를 함께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2023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조은주 목사)는 지난 1월 5일(목) 순복음은혜의강교회(담임 김영호 목사)에서 2023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지방회장 조은주 목사의 신년인사와 총

무 김영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베영례 목사의 대표기도, 김영호 목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임원목사들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은혜로운 특송 후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행 6:1-7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어려운 환경이 붙어 닥친다 할지라도 첫째, 기도

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헌신하자. 둘째, 이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화 되도록 하자. 셋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통하여 목회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별기도 시간을 통해 전임회장 김해상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과 직전회장 조길수 목사의 교단발전과 개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재부회계 김정순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조은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서면으로 보고한 후 임원목사와 모든 회원들간에 신년하례로 서해에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해가 되자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식담으로 자리를 옮겨 12광주리를 채울 수 있는 만찬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명 감당 위해 기도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

난 1월 9일(월) 교단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가 시무하는 울진갈릴리큰소망교회(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두길 8-9)에서 2023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찬양교회)의 사회로 김종현 목사(순복음평화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인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도 목사는 시 5:1-12 말씀을 본문으로 '의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설교를 전했다.

이어 성이호수이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지방회원들이 모여 월례회를 갖고 각종 임무를 처리한 후, 울진 바닷가에 있는 자연식 회를 하는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카페로 이동해 사람의 교제를 나눴다. 이후 회원들은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2023년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 되길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1월 7일(토) 오전 11시 보령시 천북면에 소재한 송죽교회(담임 이인복 목사)에서 2023년 충서지방회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총무 정진학 목사(연사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회장 안홍국 목사(한사랑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전임총회장 진동운 목사(연양은혜와진리교회)가 막 11:1-11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진 목사는 "사국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축복 해주셔서 오늘 날까지 쓰임 받고 있다. 본분은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준비된 나귀의 주인처럼 헌신 봉사하고 한해 복음을 전하며 순교적 결단으로 성령충만하며, 호산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지방회원 모두가 2023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자의 헌금기도와 광고가 있었고,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지방회장 인도로 2부 월례회를 진행했다. 직전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기도으로 시작해 총무 정진학 목사의 회계보고 후 회계장으로 임원 중인 최승수 목사(홍주산성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방회장의 마무리 기도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장소를 이동해 오찬과 함께 은혜와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년하례 및 월례회 갖고 사명 감당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1월 10일(화) 오성시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신년하례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진태 목사(선한말씀교회)의 찬송 인도 후 지방회 총무 성경오 목사(부흥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광우 목사(새생명교회)의 기도과 오승희 목사(참빛교회)의 성경봉독, 정세창 목사 부부의

특송 후에 지방회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사 60:1-5 말씀을 본문으로 '흥지발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있었고, 예루살렘은 아들의 영적 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예언하며 시온의 영광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며 "그 암울한 시대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

들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 영적 잠에서 깨어 이제 내가 준 생명의 빛을 받아 저 아들의 자녀들을 향해 빛을 발하여 생명을 심어주자 하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참 밭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엠 5:8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성경오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 표현자 목사(빛가에 심은 나무교회)의 헌금기도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1월 월례회를 통해 안건처리 등을 은혜롭게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다과 및 중식을 마치고 지방회 순회 부흥회를 배교선 목사를 감사로 하여 가진 후 인근 엘리타운에서 교제를 나누고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1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한소망교회에서 신년 예배 및 월례회 신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는 시 18:1-6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짖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고난과 문제에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어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부 율례회로 회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가 준비한 점심과 전 회원을 위해 준비한 선물로 섬기고, 저녁 식사 후에 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세계선교와 한민족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 다짐

한민족복음화부흥선교협의회 제10대 대표회장에 왕상엽 목사 취임



대표 회장
왕상엽 목사

세계선교를 위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고신현규 목사의 헌신으로 창립된 한민족복음화부흥선교협의회(총재 고신현규 목사, 현 총재 안영태 목사) 제10대 대표회장에

제10대 대표회장에 임준수 목사(세계로뵈어가 는교회)의 기도, 홍은식 목사(아산중앙교회)의 성경봉독, 이빛나 목사(생수교회)의 특별 찬양, 총재 안영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취임예배는 상임회장 위승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준수 목사(세계로뵈어가 는교회)의 기도, 홍은식 목사(아산중앙교회)의 성경봉독, 이빛나 목사(생수교회)의 특별 찬양, 총재 안영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영태 목사는 벤전 4:7-11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의 사명자는"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각각의 은사를 받은대로 선한 참지기 같이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말씀중심의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2부 취임식에서는 사무총장 김종국 목사의 연혁보고, 총재 안영태 목사의 취임패 증정, 직전회장 고본진 목사의 감사패증정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3부 축하와 감사 시간에는 생수교회 이빛나 목사(목포시내산교회)와 세브로 목사의 축하, 애상환 광주신학교 학



장 최정식 목사와 호남지방회장 조남연 목사는 축사를 통해 귀한 직분을 하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 축

제10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왕상엽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평생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대표회장의 귀한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선 후배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영태 총재로부터 대표회장 임명패를 받는 왕상엽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AG
ASSEMBLIES OF GOD



학장 정 기 영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14
- T E L: 051)808-3927
- F A X: 051)6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적대로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볼 때(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무무)
010-2731-5594, 010-9884-5594

이 땅의 복음화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

(사단법인)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2023년 새해 조찬기도회

(사)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고문 진등용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조찬 모임으로 지난 1월 16일(월) 오전 7시 이내중앙교회(담임 김원진 목사)에서 23년 제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미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본부장 김수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의 환영사, 부회장 구자범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이내중앙교회 김원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환영사에서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폐기와 이념갈등 등을 해결해 나가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모두 내어 맡겨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하고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한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원진 목사는 약 4:13-17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으로 신한 행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한 것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며 영원히 복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문 김소윤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2부 내빈소개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이명수 국회의원, 박경기 아산시장이 각각 국경선안 및 기도요청과 시정현안 및 기도요청 내용을 알렸다.

3부 기도회는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나

리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이광모 목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박희중 장로,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황기식 목사, '이기연과 420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준호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의 광고로 이날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회원들은 이내중앙교회 김원진 목사와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다음번 모임을 기약하며 돌아갔다.

2023년 신년감사예배,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1월 10일(화)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옥토교회(담임 윤득주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

로 재무 이종섭 목사의 대표기도, 오경덕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최용운 목사의 답례 3:16-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권점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순서에서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동부전선 을지부대 최전방부대 방문 장병 위로

교단 군선교위원회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월 13일(금) 설 명절을 앞두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맹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동부전선 을지부대 최전방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일정기간마다 이 부대를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장병들을 보며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한 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이날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한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창 1:19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에 장병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목표를



항해 나갈 것과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 군복무기간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진일보하게 될 것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함께한 강원안보봉사단은 최전방 식사메뉴로는 찾기 어려운 고급 자장면 200명분을 준비하여 장병들에게 대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방부대

를 방문하며 장군들과 지장면을 나누며 위로 격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부대장은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장병들을 위로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장병들과 함께 다짐하며 지속적으로 장병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들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대표고문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진등용 목사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홍(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규(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고 교장)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규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원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용 목사, 장한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박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중우 목사, 정진학 목사

이진희 목사

서기 이은혜 목사

회계 임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박희중 장로

후원회 총무 박해서 장로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윤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부흥’

신년하례예배에서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자’ 다짐

한국복음화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부단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온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가 지난 1월 13일(금) 종로 5가 여전도회관 소강당에서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기도했다.

‘예덴에서 근원 된 4대강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피종진 목사는 “3년간 회원들끼리 얼굴 제대로 한번 못 보다가 이렇게 축복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주하게 돼서 반갑다”며 풍족, 충만, 신속,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한복은 회원 모두가 변함없는 하나님께 감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했다.

이종인 목사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있지만 한국복음화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히자 박수가 터졌다.

“한국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써 기도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크신 은혜로 어두움에 막힌 길이 찬란한 복음의 빛으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는다”며 모두 감격한 몸과 마음을 갖고 성기는 저소마다 주의 은총이 깃들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공동총재 정명희 목사는 ‘한국복음화를 위하여’란 축시를 통해 “1973년 탄생한 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믿음의 거장들의 눈물과 땀을 거쳐 민족을 사수하기 위해 깃발을 펴리며 이 순간까지 이어왔다”며 울음소리를 삼켜가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다.

경남총재 정상은 목사로 “한국복음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이종인 목사님께서 위독하다고 하셨는데 잘 건디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말하며 이전보다 더욱 크게 부흥 성장하는 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될 것을 믿는다고 축사했다.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의 인도로 여성대표회장 김봉숙 목사의 대표기도, 이우성 목사(운영부총재)의 성경봉독, 권병수 목사(선교부총재)가 이끄는 그루터기찬양을 동선교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22% 감소

연말연시 맞아 1천여 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한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이하 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이 992명에 이르렀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1월 7일까지 2주간 본부 홈페이지 ‘등록 및 후원소감’ 메뉴에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생명을 구하는 약속을 하며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방방곡곡에서 모인 것이다.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기기증 희망등록 소감문 중에는 ‘생전절을 맞아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한다’,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미루었던 일을 연말을 맞아 실천하게 돼 뿌듯하다’, ‘새해 첫 버킷리스트였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행할 수 있어 기쁘다’, ‘살아있는 동안 건



강을 잘 지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새해에 더 근면한 삶을 다짐하게 된다’ 등의 내용이 줄을 이었다. 또한, 후원소감문에는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새해 경제가 더 어려워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 더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후원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잇따르며 정초부터 나눔의 온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2023년 첫 주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한 만 16세가 되자마자 서약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의 사연도 등장했다. 오래전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소망을 품어왔다는 황규찬 군은 “지난해 말 생일이 지나며 드디어 만16세가 되어 새해가 되자마자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 누군가가 저의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매년 캠페인이 대폭 축소돼 장기기증 홍보 및 희망등록자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은 2004년 이후 최초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7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 2021년에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미디어에 소개된 감동적인 사례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며 한 해 등록자가 87,424명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2% 정도 감소하며 68,418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CTS서 방영된 30만편 설교, 프로그램, 뉴스 서비스 제공

국내 대표 목회자 8만여 편 설교 콘텐츠 보유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1월 1일 신년부터 뉴스 미디어를 통한 복음전파를 위해 대한민국 종교 최초로 기독교 OTT플랫폼 서비스인 ‘CTS JOYGO’를 오픈했다.

CTS의 OTT서비스 ‘JOYGO’는 CTS기독교TV에서 27년 동안 방영된 약 30만편의 설교, 프로그램, 뉴스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특히 JOYGO는 총 8만

여편 이상 국내 최대량 대한민국 대표 목회자의 설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경별 검색은 물론 절기, 주제, 인물 등 상세한 분류 체계로 원하는 설교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기독교 명작 영화, 웹드라마 등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매주 다양한 추천 테마

를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한다. JOYGO 담당자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CTS 기독교TV에서 제작하고 엄선하여 제공하는 JOYGO의 콘텐츠가 미디어 선교와 복음 전파, 신앙 성장의 좋은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장을 기념하여 JOYGO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이트에 정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한 선착순 500명 이용자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100%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JOYGO(www.joygo.c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임후보자 없어 모집 기간 연장할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1월 16일(월) 오후 5시 대표회장 임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아무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한기총은 모집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1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정기총회 일정도 연

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기총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안건은 △2022년 결산 및 예산 승인의 건 △대표회장 선출의 건 △기타 안건이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니를 보내소서.

주의 종들이여,
오늘의 심장 십자가 삼으세.
회개의 십자가.
회생의 십자가.

미움의 지상전이여, 교회여,
주의 몸이시여,
그대 몸은 순결하여라

심령의 불빛기 속에
주의 임재 가득하다.

오늘나 여기있어,
다메섹 회심, 아랍의 압박강 되어
눈물의 고백 바디를 이루리.

요한의 고백 있어
주의 행하신 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된 책이 세상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피 값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사나 죽으나 온세계를 향하여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디든 달려간다.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고 비가와도 달려간다.

각 교회의 전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어
교회를 부흥케 한다.

45년 동안 현장전도뿐 아니라
그의 저서로는
가족세트 전도법, 양육교제,

심방10본설교집,
153일제 현장전도저자 간증집,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중
단 한명 받는 전도왕이 되었고,
기네스북 후보자가 되기도 하였다.

기독교성령운동 주자
100인중 한명으로 활약하시다.
사나 죽으나 전도!
복음전도!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비금도천일염판매
20kg
40,000원(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믿음으로 새길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4~5세기 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점술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점치는 도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앞날을 점치기 좋아했습니다.

예배당이나 제단이나 특히 성인(聖人)의 무덤에 성경을 놓고서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앞날을 지도해 달라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인에게 빌고, 그리고 성경을 펴는 순간 처음 눈에 들어오는 단락에서 응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르테스 상토툼(여룩한 점)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비신앙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463년 '비인 공의회'와 508년

'이그레 공의회'에서 이런 행위를 금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같은 점술적인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눈 감고 성경 펼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진리이며 축복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그와 같이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된 길은 점술이나 마술이 인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보혈의 강을 건너야만...

갈보리 십자가 주님 흘리신 보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적시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 주기 위함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과과의 재회는 불가능합니다.
귀 있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보혈의 강을 건너 새사람이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자라납니다.

보혈의 강을 건너지 못한 옛 사람일 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썩어질 인생에 부패만 더할 뿐입니다.

보혈의 강을 건너 새 생명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장판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혈의 강을 건너 새 생명은
순종하며 자라고, 고난의 유익을
찾아 자라고, 실수해도 회개함으로 자라납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거듭남에서 출발한다.
놀라운 비밀은 거듭남이다.

사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질고 올바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해나가는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행복하고 태평기를 부르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폭군을 만나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살아가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태평성대를 꼽으려면 서슴없이 세종시대를 꼽는다. 그 이유는 인자해서도, 무조건 백성들 아껴서도 아니다. 그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모두를 평등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게 했기 때문이다. 기강을 바로 세웠다는 말이다.

어느 날 태종이 정승(政丞) 조준에게 물었다. 건문제는 관대하고 어진데 왜 망하고, 연락제는 형살(刑殺)을 많이 했는데 왜 흥했나? 조준이 대답하기를 건문제는 기강을 세우지를 못한 채 관대하고 어질기만 했고, 건문제는 기강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 5년 동안 법률 위에 때 법이 있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를 기울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세종처럼 신상필벌로 나라를 다스리며 (내)국민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어야겠고 (내)남북이 있어야지만 한다. 정치가 난장판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가만히 있는데 나라가 저절로 망하는 법은 없다.

지금처럼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어서 서로 헐뜯고 물고 먹으면 파자 필망의 길을 가게 된다. 물고 먹는데 잘되는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서로 물고 먹으며 헐뜯기에 열중하고 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는 군사적 개념만 판치고 있다. 망하지는 얘기가. 정치권이 난장판인데 지식인들은 침묵 속에서 입 꾸욱 닫고 구경만하고 있으면서 '까마귀 우는 데 백로가 가지 마라'만 외치고 있다. 구경하다가 딱만 먹겠다는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행동이다.

각종 비리 의혹에 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되는 장면을 보고서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라 구한 영웅도 아니고 거대 야당을 팔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에도 특별대우를 받으려고만 한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에

국회의원 43명이 줄줄이 따라가고 개판들이 파켓 들고 나가서 그렇게 세(勢) 과시하던 있던 죄가 없어지나. 과거 나라 망치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때는 내 사랑이라며 범죄 행위를 때장을 부르며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증언이나 증거들은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모두 다 조작이며 무혐의 된 시간을 꼬집어냈다고 한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고 한다.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을 뿐 무혐의 처리한 적이 없다고 부장검사도 말해줬다. 그러나 지지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먹히니까. 세종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본다. 누가 감사고 누가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간다.

새해 첫날 발표한 지난 한 해 무역수지적자 규모만 472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외환위기 때인 1996년(206억 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으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율 -4.5%로 전망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런데 기쁨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비관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이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국가적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더 이상 해어나올 기망조차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

정치권은 대오각성하고 엄정한 법치를 실현하여 특권층, 특별대우라는 말조차 사라지도록 체결할 것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경제살리기와 고령화 대비책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 마음 되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도 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힘써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한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 17:14)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한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 20: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시 18:2-3)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 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 원자 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승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로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